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오룡관에서 훈련하고 있는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

/연합뉴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광주체고 출신 안세영

“세계 1위? 최종 목표 아냐 21-0 완벽 승리 추구한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웃음)”
 ‘피겨 여왕’ 김연아(은퇴)는 과거 다큐멘터리에서 ‘무슨 생각 하며 (훈련)하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연아는 훗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 거였는데 많은 분이 좋게 포장해주시더라”고 했지만, 많은 스포츠팬은 김연아의 담담하고 초연한 멘탈에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1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만난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21)에게서도 비슷한 느낌을 읽을 수 있었다.

광주체고 출신의 안세영은 이달 21~27일 세계 개인선수권, 다음 달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컵 투어 슈퍼 1000 중국오픈과 황제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인 공격력을 보완하고자 코트 사이드라인에 세워둔 셔틀콕 케이스를 스매시로 맞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체력과 끈기에 기반한 기존의 수비뿐 아니라 예리한 공격 기술도 장착하려는 시도다.

스타일이 제각각인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3위 천위페이(중국), 4위 타이즈잉(대만)에게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플레이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일어나면 뭘 할지 딱 정리돼 있어 힘든 것 이겨내면 성장해 있을 것
 수비 이외 예리한 공격력 장착 중
 세계선수권·AG 대비 훈련 구슬땀

안세영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도 보완하려면 평소보다 더 힘들지 않나’라는 질문에 “감독님과 코치님의 지도를 그냥 잘, 열심히 따라 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안세영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지 딱 정리돼 있다. 그러면 (훈련이)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돼서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면 별로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힘든 게 오히려 ‘이 또한 이겨내면 어느 샌가 내가 성장했었을 거다’라는 상상을 하면 되게 잘 이겨낼 수 있더라”고 떠올렸다.

이달 1일 세계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앞으로 두 달간의 국제 일정이 마치 시험대처럼 느껴질 법한 데도 의연한 모습이었다.

안세영은 “세계랭킹 1위는 최종 목표가 아니다”

라며 “저는 완벽함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렇다면 안세영이 말하는 ‘완벽함’은 무엇일까.

안세영은 쑥스러운 듯 “말도 안 되겠지만...”이라고 퓌를 들인 뒤 “21-0으로 세트를 끝내는 완벽한 경기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상대 득점을 한 자릿수로 묶어도 압승으로 평가 받는 데도 안세영은 더 나아가 한 점도 주지 않고 21연속 득점하는 꿈을 그리는 것이다.

안세영이 세계 1위 타이틀에 주눅 들지도, 자만하지도 않고 묵묵히 셔틀콕 케이스 맞히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다.

고된 훈련 성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안세영의 수비가 (상대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다가가는 수비로 바뀌었다”면서 “야마구치든 천위페이든 타이즈잉이든 세영이가 그 선수들을 압도해 끌고 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감독은 “그 습득 과정이 아주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은 반복 훈련을 통해 (그런 플레이가) 자기 것처럼 잘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세영은 “세계랭킹 1위는 최종 목표가 아니다”

파리올림픽 때 센강에서 수영 경기 열릴까

조직위, 트라이애슬론 테스트 이벤트 개최...수질 검증 나서
 열흘 전 오픈워터 스위밍 테스트 이벤트는 수질 악화로 취소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2024 파리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테스트 이벤트’가 열린다.

오픈워터 스위밍 테스트 이벤트가 ‘수질 악화’로 취소된 지 열흘 만에 또 한 번 ‘센강 수질’을 검증한다.

세계트라이애슬론 연맹은 16일(현지시간) “파리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개막을 하루 앞두고, 선수들과 연맹이 사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이어서 하는 종목인 트라이애슬론은 대회 하루 전에 코스를 점검한다.

이번 테스트 이벤트는 ‘파리 올림픽 코스’와 같이 센강에서 수영하고, 센강 주변을 달린다. 시선은 센강을 향했다. 현지시간 16일에 선수들은 센강에 입수했다. 이날 훈련 중 센강의 수질은 ‘기준점’을 통과했다.

20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남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크리스티안 블루멘펠트(노르웨이)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수영할 때 입을 벌린다. 내일 내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리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테스트 이벤트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여자 개인전, 18일 남자 개인전을 치른다.

지난 5~6일 센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오픈워터 스위밍 테스트 이벤트는 ‘수질 악화’로 취소됐다.

당시 국제수영연맹은 “최근 파리에 폭우가 내린 후 센강의 수질이 수영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허용 기준 이하에 머물렀다”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센강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걸 꼭 증명하겠다”

며 “올해 7월 말과 8월 초에는 파리에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정상적인 날씨일 때 센강의 수질은 기준점을 통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픈워터 스위밍 테스트 이벤트가 수질 악화로 취소된 데다, 트라이애슬론 테스트 이벤트도 개최하려는 조직위의 의지는 강하다.

파리시는 2024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2025년부터는 센강 일부 지역에서 다시 수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00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처음 열렸을 때만 해도 센강에서 수영 경기가 열렸지만, 수질 악화로 1923년부터 입수가 금지됐다.

여전히 “여러 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올림픽을 ‘센강 수질 검사’에 활용하는 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나온다.

세계트라이애슬론연맹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센강의 수질을 검사하고 있다. 경기 당일 수질이 악화하면 수영을 댐 듀에슬론(사이클과 육상) 형식으로 전환해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성전환 선수 출전 수영대회 열린다

국제수영연맹 10월 독일서 개최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출전하는 국제수영대회가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국제수영연맹은 16일(현지시간) “10월 6~8일 열리는 2023 월드컵시리즈 베를린 대회에 ‘오픈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모든 성별과 여러 정체성을 지닌 수영 선수를 포용할 수 있다. 이런 포용성을 확인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했다.

일단 베를린 대회에서는 자유형, 평영, 배영, 접영 등 각 영법의 50m와 100m에서 트랜스젠더가 출전하는 ‘오픈 부문’ 경기를 벌인다.

연맹은 “오픈 부문은 추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수영연맹은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 기간에 임시 총회를 열고 ‘성전환자 중 12세 이전에 수술받은 선수만 여성부 국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세계트랜스젠더건강전문가협회(WPATH)가 성전환 수술을 권유하는 최소 연령이 15~17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트랜스젠더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7월에 열린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기간에는 트랜스젠더 선수끼리 경쟁하는 부문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연맹은 “해당 국가 연맹에 등록된 선수는 개인, 클럽, 국가 연맹 회원 소속으로 오픈 부문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를린 대회를 앞두고 국제적인 출전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노바크 조코비치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신시내티 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2회전에서 다비도비치 포키나를 상대로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미국서 2년만에 승전고

신시내티오픈 테니스 3회전 진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신시내티오픈(총상금 660만 달러) 남자 단식 3회전에 진출했다.

조코비치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남자 단식 첫판인 2회전에서 다비도비치 포키나(23위·스페인)에게 기권승했다.

1세트에서 조코비치가 게임 점수 6-4 이긴 뒤 포키나가 허리 부상으로 기권을 선언해 경기가 그대로 끝났다.

조코비치는 엘리트 디미노어(12위·호주)를 2-0(7-5 6-4)으로 몰린 가엘 몽피스(211위·프랑스)와 3회전을 치른다.

조코비치가 미국에서 단식 경기를 치른 건 2021년 9월 US오픈 준우승 뒤 2년 만의 일이다.

지난해 1월 호주에 입국했다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이유 사실상 추방돼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조코비치는 같은 이유로 미국 땅도 밟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미국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외국인도 자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방역 방침을 변경하면서 올해 미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오랜만에 복식에도 도전했으나 전날 열린 복식 1회전에서는 패했다.

미국 팬들 앞에서 오랜만에 치른 단식 경기에서 승리한 조코비치는 “이런 식으로 이기고 싶지는 않았다. 미국 팬들은 ‘전투’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조코비치는 28일 개막하는 US오픈에서는 통산 4번째 우승과 더불어 24번째 메이저 대회 정상 등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오픈하이머
- 2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바다 탐험대 옥토포트 어보브 앤 비온드 : 육지 넘어 하늘까지!
- 3관 밀수
- 4관 오픈하이머, 보호자
- 5관 오픈하이머, 보호자
- 6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9관 밀수, 비공식작전
- 7관 새네거들 달짝지근해: 7510, 보호자
- 8관 새네거들 엘리멘탈, 메가론 2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
 산책